

인터넷을 제대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질과 속도에서 갈린다. 스마트폰과 검색창이 있다고 모두가 같은 답을 얻지는 않는다. 출발점이 좋으면 불필요한 클릭을 줄이고 스팸을 피해간다. 이 글은 처음 모으기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 일상에 바로 쓰이는 링크모음 전략, 초보자가 부딪히기 쉬운 함정과 관리 요령을 담았다. 주소를 외우지 않더라도 습관을 만들어두면, 한 달 뒤에는 화면 앞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체감할 만큼 줄일 수 있다.

##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기준

주소모음의 핵심은 많음이 아니라 접근성이다. 아무 링크나 긁어모으다 보면 스스로 만든 정글에 갇히게 된다. 실무에서 팀 온보딩용 링크모음을 20여 차례 만들어본 경험으로 보면, 세 가지 기준만 지키면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 첫째, 공식 출처를 최우선으로 둔다. 둘째, 사용 빈도가 낮은 링크는 과감히 제거한다. 셋째, 검색으로 대체 가능한 항목은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은 반복 클릭을 줄이는 용도로만 쓰는 편이 낫다.

초보라면 숫자 목표를 정하는 게 좋다. 처음 2주 동안은 상위 12개 링크만 고정해놓고, 나머지는 검색으로 해결한다. 상위를 다루는 습관이 몸에 배면 그 뒤에야 보조 링크를 붙인다. 주소모음은 작은 도구지만, 기준이 없으면 쉽게 무거워진다.

## 빠르게 길을 찾는 기본 동선

검색창에서 떠돌 시간을 줄이려면 핵심 카테고리를 정해 북마크 바에 박아두는 편이 낫다. 보통 일상, 돈과 행정, 학습, 생산성, 문화와 취미, 안전과 신뢰, 이렇게 여섯 갈래로 나눈다. 카테고리마다 2개 정도의 대표 사이트를 두고, 특정 기능 페이지를 바로 여는 딥링크를 곁들인다. 주소를 지정할 때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근이 쉬운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24는 로그인 흐름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메인만 저장하지 말고, 자주 쓰는 서비스별 조회 페이지를 함께 저장한다.

## 일상생활 - 길찾기와 지역 정보

모든 주소모음의 바닥에는 지도 서비스가 있다. 개인 일정과 지역 정보는 지도에서 출발하면 삽질이 줄어든다.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는 둘 다 깔끔하지만, 업데이트 시차와 리뷰 색깔이 달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 오래된 골목길이나 신축 건물 정보는 카카오맵이 빠른 편이고, 실내 길찾기나 대중교통 환승 정보는 네이버지도가 더 촘촘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두 앱을 모두 설치하고, 검색은 네이버, 길찾기 시작은 카카오처럼 역할을 나누면 편하다. 자주 가는 시설은 즐겨찾기 폴더로 묶고, 폴더 이름을 동사 형태로 적어둔다. 예를 들어, “주말 먹기”, “수영 가기” 같은 식이다. 폴더가 기능을 말해주면 선택이 빨라진다.



지역 공공시설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보다 국가 단위 포털이 더 정리되어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 문화행사,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통합포털에 한 번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대출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도 가지를 타고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주소를 전부 외우기보다, 상위 허브를 하나 넣어두는 방식이 관리가 수월하다.

# 돈과 행정 - 정부24, 법령, 세금

국가 서비스는 정부24가 허브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대부분 해결된다. 자주 쓰면 알게 되지만, 정부24는 특정 서비스에 바로 들어가는 주소가 서비스마다 형식이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나만의 링크모음에는 메인 주소 한 개와, 진짜 자주 쓰는 딱 두 가지 발급 페이지를 같이 저장하는 편이 낫다. 브라우저 자동완성과 비밀번호 관리까지 더하면 클릭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법령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준이다. 민원인 상대 업무를 하다 보면 포털 블로그 글이 상위에 올라와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소송, 처분, 영업 관련 기준은 반드시 law.go.kr에서 확인하고, 최신 개정일을 눈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기 권리를 지키는 출처 습관은 이 한 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세금은 홈택스가 중심이다.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접속이 몰려 느려지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다. 주소모음에는 메인 외에도 “민원증명 - 발급” 같은 딥링크를 함께 저장해두자.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열 수 있으면 불안이 줄어든다.

## 학습과 리서치 - 과부하를 줄이는 길

학습 사이트는 모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엄선이 중요하다. 한국어 기반 강좌는 K-MOOC, 항목별 기초는 에듀테크 회사들의 무료 맛보기 강좌로 충분히 훑을 수 있다. 영어 학습이나 외국어는 Duolingo 같은 앱이 접근성이 좋지만, 읽기 실력은 결국 원문 아카이브에서 쌓인다. 공공 데이터, 오픈 액세스 논문, 통계 원자료는 품질이 일정하다. 일반 블로그에서 본 통계 수치를 검증하려면 통계청 KOSIS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KOSIS에서 표를 바로 내려받아 엑셀 피벗으로 재가공하는 습관을 들이면, 출처 미상의 그래프에 휘둘릴 일이 줄어든다.

전문 논문은 국내 RISS, 해외에서는 PubMed, arXiv, Google Scholar가 무난한 조합이다. 각 플랫폼의 검색 문법이 다르므로 초반에는 간단한 쿼리 예시를 링크메모에 함께 적어둔다. 예를 들어, Scholar에서는 따옴표로 정확 일치를 검색하고, arXiv는 카테고리 코드를 기억하면 탐색이 빨라진다. 메모란에 “정확 일치: "phrase", 제외: -term” 정도의 힌트를 붙여두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한다.

## 생산성과 협업 - 파일, 메모, 자동화

문서 협업은 구글 드라이브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중 하나만 집중해서 익히는 편이 낫다. 두 체계를 동시에 쓰면 포맷 충돌과 권한 혼선이 어렵지 않게 생긴다. 개인 작업 위주라면 구글 드라이브가 손쉽고, 사내 표준이 엄격하면 365가 안정적이다. 링크모음에는 루트 폴더 주소와 새 문서 템플릿 링크를 나란히 둔다. 회의 노트, 제안서, 데이터 시트용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링크해두면, 파일명이 깔끔해지고 공유 과정도 매끈해진다.

메모는 한 도구만 꾸준히 쓰는 쪽이 낫다. Notion, Evernote, OneNote는 철학이 다르다. 트래커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면 Notion, 캡처와 검색이 중요하면 Evernote, 손글씨와 폴더가 편하면 OneNote를 선택한다. 도구를 고르고 나면 단축키와 클리핑만 익히자. 클리핑으로 저장한 페이지는 원문 제목 그대로 두지 말고, 30자 이내로 재작성한다. 나중의 검색은 제목에 달려 있다.

간단한 자동화는 브라우저 확장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광고 차단, 리더뷰, 다크모드, 세션 저장 같은 작은 도구를 두세 개 붙이면 눈과 손목이 편해진다. 다만 확장은 로그인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명 개발사 제품만 쓰고,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한다. 1년 넘게 업데이트가 없다면 대안으로 갈아타는 게 안전하다.

## 공공데이터와 지도 깊이 파기

공공데이터포털은 주소 하나로 수많은 주제를 연결한다. API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데이터셋을 CSV로 내려받아 엑셀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일상 문제를 풀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주차장 정보를 자주 본다면, 지도 앱 즐겨찾기와 공공데이터 주차장 목록을 함께 두고 비교하면 유료, 무료, 야간 개방 등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 업주라면 상권 통계와 인구 이동 자료를 묶어 출퇴근 시간대의 유입을 추정하는 데 쓸 수 있다.

무용산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기준이다. 포털 기사 대신 공식 공개 시스템의 최근 3개월 데이터를 먼저 본다. 가끔 데이터 반영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일과 계약일 간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붙인다. 초보자는 최근 거래 하나에만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데, 최소 12개월, 가능하면 24개월의 흐름을 본 다음 판단하는 쪽이 낫다.

## 문화와 취미 - 합법적으로 즐기기

영화와 드라마는 국내 주요 OTT가 구성을 빠르게 바꾼다. 주소모음에는 각 서비스의 콘텐츠 업데이트 페이지나 이벤트 공지 페이지를 붙여두는 편이 낫다. 무료 체험과 번들 프로모션은 보통 분기마다 나온다. 음악은 스트리밍 2개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 많은데, 한 달만 병행해 라이브러리를 정리하고 하나로 합치는 전략을 추천한다. 주소모음에도 플레이리스트 관리 페이지 하나만 남기자. 정리는 가볍게, 감상은 길게가 취미를 오래가게 만든다.

스포츠는 중계권 이슈가 민감하다. 특히 프로야구 무료중계는 검색 결과에 불법 링크가 많아 초보자가 낚이기 쉽다. 중계권은 시즌마다 유통사가 바뀌고, 지역 방송사의 편성도 종종 달라진다. 합법적으로 접근하려면 세 가지 선을 지키면 된다. 첫째, KBO 공식 사이트와 구단 공식 채널의 공지에서 중계 일정을 확인한다. 둘째, 포털 스포츠 섹션에서 제공하는 문자중계, 하이라이트, 프리뷰를 병행한다. 고화질 풀경기는 유료인 경우가 많지만, 요약 하이라이트와 특정 무료 경기는 공식 채널에서도 제공한다. 셋째, 라디오와 오디오 중계는 저작권 범위가 달라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소모음에 같이 저장하면 데이터 부담 없이 이동 중에도 즐길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은 [링크모음](#) 보안 위험과 법적 리스크가 크다. 광고 스크립트에 악성코드가 포함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검색 결과 상단에 있어도 공식 출처가 아니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

## 안전과 신뢰 - 클릭 전에 점검

주소모음을 만들다 보면 사이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도메인이 회사명과 불일치하면 경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입력창은 SSL 인증서, 주소창 자물쇠, 도메인 철자를 확인한다. 은행과 카드사, 택배사는 피싱 메일이 많은 분야다. 이런 분야 사이트는 검색을 통해 들어가지 말고, 정확한 주소를 북마크해 두고 항상 거기서만 접근하자. 설치형 결제 모듈은 가급적 최신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결제를 쓰는 게 보안상 유리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지난 업데이트 날짜를 한 번쯤 읽어보는 습관도 유효하다.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3자 제공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대안을 찾는 편이 낫다. 무료 서비스는 수익 구조가 광고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체감 차이가 크다.

## 초보자를 위한 주소모음 스타트 세트

아래는 PC 브라우저의 북마크 바를 기준으로, 처음 2주 동안 써볼 만한 구성을 추린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정부24 메인, 자주 쓰는 민원 2개 딥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 홈택스 민원증명, 세금계산서 확인, 전자신고 메인
- 지도 2개, 길찾기 기본 주소, 자주 가는 장소 폴더
- 포털 뉴스 섹션, 공공데이터포털 메인, 통계청 KOSIS 메인
- KBO 공식, 포털 스포츠 문자중계, 라디오 스포츠 채널

이 다섯 묶음만 있어도 일상 업무의 70퍼센트를 커버한다. 회사나 학교에서 쓰는 전용 시스템은 이 기본 세트 옆에 붙여도 되고, 프로필을 분리해 업무용 브라우저와 개인용 브라우저를 나눠도 좋다. 계정 혼선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

## 링크모음을 스스로 만드는 법

최적의 링크모음은 남이 준 정답이 아니라, 내 손 습관과 눈 동선에 맞춘 구성이다. 1주일만 투자해도 체감이 된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 하루 동안 클릭한 사이트를 브라우저 히스토리에서 추려 톱 20을 적는다.
- 톱 20 중 포털 검색으로 대체 가능한 항목을 지우고, 남은 10에서 중복 기능을 합친다.
- 각 항목에 대해, 메인인 아닌 바로 실행되는 딥링크가 있는지 검색해 치환한다.
- 북마크 바에 8개만 올리고, 나머지는 폴더 하나에 넣는다. 아이콘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8자 내로 줄인다.
- 3일 뒤,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북마크를 교체하거나 버린다. 이 교체를 2회 반복하면 현재 필요에 맞는 구성이 남는다.

이 순서를 따르면 열흘 만에 북마크 바가 손에 익는다. 포인트는 줄이는 과정이다. 줄여야 속도가 난다.

## 실전 예시 - 하루 흐름으로 보는 주소 활용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네이버지도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첫 환승 시각을 확인한다. 전날 즐겨찾기에 저장해둔 카페를 길찾기 시작점으로 지정하면, 약속 장소까지 몇 분이 여유인지 바로 나온다. 도착 후 대기 시간에는 포털 뉴스 섹션을 빠르게 훑고, 읽을 거리를 메모 앱으로 클리핑한다. 제목은 “23.05. - 반도체 수출 전망”처럼 날짜와 핵심 단어만 담는다.

업무 시간,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온다. 홈택스 민원증명 딥링크를 바로 열어 소득금액증명을 PDF로 내려받아 메일로 보낸다. 5분 이내로 끝난다. 잠깐 비는 시간에 데이터 분석 자료가 필요해 통계청 KOSIS 메인으로 들어가 최근 12개월 실업률을 확인하고, 그래프를 캡처해 문서에 붙인다. 구두 보고 자리에서는 “KOSIS 기준 최근 12개월 동향”이라는 말을 덧붙여 출처에 힘을 실는다.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프로야구 경기 상황이 궁금해진다. 포털 스포츠 문자중계를 열어 현재 이닝과 득점권 상황을 확인한다. 잠깐의 하이라이트는 KBO 공식 채널에서 제공하는 경기 요약 영상으로 충분하다. 무료 중계를 표방하는 불법 사이트가 검색에 보이지만, 주소모음의 공식 링크로만 이동한다. 이 작은 습관이 기기 보안과 법적 리스크를 아예 차단한다.

## 주소모음과 브라우저의 궁합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는 동기화 구조가 서로 다르다. 크롬은 확장 생태계가 풍부하고, 엣지는 업무용 기능이 기본으로 붙어 있다. 사파리는 애플 생태계라면 배터리 효율과 연동이 좋다. 파이어폭스는 개인화와 프라이버시 제어가 강하다.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계정 동기화를 켜면, 모바일과 PC에서 같은 북마크를 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을 섞어 쓰는 경우다. 동기화 프로필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브라우저 아이콘 색을 바꾸거나, 프로필 이름을 “개인”, “업무”처럼 명확히 구분하면 실수로 잘못된 계정으로 문서를 공유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팁은 시작 페이지를 비워두는 것이다. 브라우저를 켜자마자 포털 메인으로 열리게 해두면 뉴스와 추천 콘텐츠가 클릭을 유도한다. 빈 페이지로 열고, 북마크 바의 첫 링크만으로 시작하면 집중도가 올라간다. 하루에 10회만 클릭을 줄여도 한 달이면 체감 시간이 달라진다.

## 검색 기술을 주소모음에 삽입하기

링크만 모으면 고정된 길로만 가게 된다. 때로는 검색이 더 빠르다. 그래서 링크모음 안에 검색 팁을 심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이트 내부 검색 연산자를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site:law.go.kr ‘가압류’ 최신순” 같은 형태를 북마크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바로 뜬다. 특정 키워드의 최신 변화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면 구글 알리미를 설정해 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알리미는 잡음이 많으니, 정확 일치와 제외어를 조합해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초보자가 자주 겪는 에러와 해결법

링크가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다. 특히 포털 서비스의 이벤트 페이지나, 공공기관의 임시 서비스는 URL 구조가 바뀌기 쉽다. 이런 페이지는 북마크하지 말고, 상위 허브에 표시해두자. 북마크 이름에 “임시” 표시를 붙여 한 달 뒤 점검해 지우는 방법도 쓴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10분만 투자해 북마크를 청소하면, 쓸모없는 링크가 쌓이지 않는다.

직장 환경에서는 프록시나 방화벽 때문에 평소 쓰던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한다. 이때는 개인 기기에서 우회하지 말고, IT팀과 협의해 공식 예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안 정책 위반으로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정책 내에서 길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빠르다.

## 링크모음을 팀과 공유할 때

혼자 쓰는 주소모음은 거칠어도 괜찮다. 팀과 공유하려면 구조와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은 다음의 방식이 명료했다. 카테고리를 6개 이하로 묶고, 각 링크 옆에 목적과 사용 빈도를 괄호로 적는다. “정부24 - 증명서 발급 주 2회”, “KOSIS - 실업률 월 1회” 같은 식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링크의 의미를 2초 안에 이해해야 한다. 링크 수는 20을 넘기지 않는 편이 좋다. 더 많아지면 문서로 전환해 목차와 검색을 제공한다. 문서에는 업데이트 이력을 넣고, 마지막으로 점검한 날짜를 명시한다. 신뢰는 이런 작은 투명성에서 생긴다.

## 프로야구 무료중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검색 포털에 “프로야구 무료중계”를 입력하면 수상한 링크가 줄줄이 나온다. 보안 경보가 뜨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합법적 무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한정된다. 특정 요일 혹은 특별 경기를 제공하는 포털의 스포셜 중계, KBO나 구단 공식 채널의 하이라이트, 인터뷰와 분석 코너, 라디오 오디오 중계, 그리고 시범경기 일부. 정규시즌 풀경기는 유료 중계권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시간 화면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문자중계가 훌륭한 대안이다. 투구 결과, 주자 상황, 세부 기록이 텍스트로 실시간 제공되므로 데이터 소비가 적고, 이동 중에도 부담이 없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팬들도 많다.

주소모음에는 다음 조합을 권한다. KBO 공식 사이트, 자주 보는 포털의 스포츠 문자중계 메인,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라디오 스포츠 채널. 여기에 유료 중계를 결제해둔 플랫폼이 있다면 마이페이지와 편성표 링크를 덧붙인다. 토요일 저녁처럼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에는 앱 캐시가 꼬여 버벅거릴 수 있으니, 경기 시작 10분 전에 켜두면 안정적이다.

## 유지보수, 그리고 작게 시작하기

링크모음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도구가 아니다. 서비스는 변하고, 내 관심사도 바뀐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가볍게 고치는 편이 낫다. 목표치가 크면 손도 안 간다. 오늘은 북마크 바에 다섯 개만 올리고, 다음 주에 두 개만 바꿔보자.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한 칸을 더 만든다. 이 방식으로 3개월을 보내면, 화면 상단의 10개만으로 하루 대부분을 처리하는 경지가 온다. 모니터 앞에서 허둥지둥하던 손이 한 박자 느긋해진다. 결국 주소모음의 목적은 더 적게 클릭하고, 더 잘 판단하는 것이다.

## 마무리의 자리에서 생각할 거리

좋은 링크모음은 취향을 드러낸다. 같은 정부24라도 어떤 서비스에 딥링크를 걸었는지가 그 사람의 생활을 비춘다. 남의 모음을 그대로 베껴도 손맛이 없다. 오늘 적어둔 사이트와 방법은 시작점일 뿐이다. 내 일과 생활의 반복을 관찰하고, 거기서 자주 쓰는 길부터 다듬자. 사이트 주소모음은 링크모음 이상의 힘을 가진다. 작은 기준과 몇 개의 링크가 하루의 품질을 바꾼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길을 택하는 습관이 쌓여서 쾌적한 인터넷 생활이 완성된다.